

01 교회소식

성탄 점등식

온택트(ontact) 시대, 랜선 예배로 진행한 몽골만민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

02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맞아 곱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비취 변화시킨 것으로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자.

03 신앙칼럼_ 등불

마음의 주파수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선 자제이신 하나님께 항상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

04 선교

라틴아메리카, 온라인 선교 시대를 열다

15번째 성결 복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 콜롬비아만민교회 장정연 목사의 선교소식.

만민뉴스

제934호 2020년 12월 2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온택트 시대, 2020 성탄 온라인 점등식 개최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11일 밤 10시 50분, 성탄 트리 점등식이 본당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진행한 것이다.

이 행사는 GCN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되었으며, 성탄 장식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제로 하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주님을 향한 전 성도의 사랑의 향을 표현하였다.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오후 7시, 대전만민교회 담임 길태식 목사의 설교로 성탄전야예배, 25일 오전 11시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설교로 성탄 축하 예배가 있을 예정이다.



랜선으로 진행된 몽골만민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

몽골만민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가 2020년 12월 6일 주일 오후 3시, 이미영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었다. 지난 5월 몽골만민교회 창립 기념예배를 위해 선교 출장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기되었다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으로 이번 창립기념예배를 랜선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 청정지역이던 몽골에도 11월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모임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라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한 랜선 예배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예배에는 70

여 명의 몽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였으며, 예배 후에는 케이크 커팅식으로 창립 17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8

성탄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희생시키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물을 드릴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주신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비취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면 가장 귀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1. 예수님은 고우신 분이었습니다

모양이 거칠지 않고 모나지 않은 것, 부드러운 것을 ‘곱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 행동과 말씨, 모든 것이 고우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마 12:19)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셔도, 혹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소경, 귀머거리, 중풍병자 등 중증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거친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명에 순종하여 잠잠해졌지요. 이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몰려들었지만 전혀 들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 칭송받기 원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지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자 길을 걸으실 때도 조용히 걸으셨고 요란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사람들을 제압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남을 해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소자 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고압적인 자세가 아닌 섬기는 자세로 대하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져서 피조물인 사람들을 섬기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하는 이들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같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틈만 나면 울무를 놓아 잡으려 하

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책망을 하셨지만 이는 그들과 싸워 이겨서 억지로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키도록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신 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범한 영혼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고운 마음을 지닌 분이 그 누구에게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말이 온전하셨고 행실도 참으로 거룩하고 온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운 마음을 지니면 자연히 고운 말과 행실이 뒤따릅니다.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 선한 말을 하지요.

또 고운 마음을 지닌 사람은 누구를 대할 때든 자신의 말과 행실을 꼼꼼히 살핍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나 사람이 보기에나 참으로 고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날부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최후의 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영혼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들을 속량하시려고 ‘짐승의 우리’에서 나셨습니다. 또한 이런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려고 ‘구유’에 누이셨지요. 인생들을 가난의 저주에서 풀어 주시려고 부요하신 분임에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려고 채찍에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마침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무엇을 넉넉하게 누릴 권한도, 자유로이 살 권리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는 오

직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들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셨지요. 빌립보서 2장 8절 후반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신 대로입니다. 이 희생은 ‘내가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이런 의무감에서 나온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인생들이 내 뜻과 내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군림하고 높임 받기 위해 계산적으로 희생하신 것도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희생은 오직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 볼 수 있도록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회고해 보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부부에게는 선물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워하던 아내는 자신의 탐스럽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에게 줄 시계 줄을 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멋진 시계에 줄이 없어서 늘 안타까워했지요. 이제 곧 줄을 달아 줄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선물을 주던 날, 그 시계는 이미 남편의 손에서 떠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유일한 귀중품이었던 시계를 팔아 아내에게 줄 머리빗을 샀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내를 보니 이제는 그 빗이 별 필요가 없는 짧은 머리카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는 절망했을까요? 오히려 더 감격적인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깊은 사랑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가장 귀한 것, 바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나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노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전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이 희생은 예수님께서 어찌하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고픈 마음을 표현하신 사랑의 행함이기도 했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지요. 예수님은 그 귀하신 몸을 제물 삼아 인생들에게 구원과 천국을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희생으로 인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길, 천국 길이 열렸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영혼들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왜 진리가 하나라고 고집하는가? 왜 십자가의 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며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왜 꼭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가?’ 하며 불편해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에 담긴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주님의 희생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강압적인 의무가 아니지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깨달은 이 사랑을 서로서로 전하고

나눔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철저한 희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바랍니다.

3. 예수님은 항상 간구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결이나 사랑을 구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분이셨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잠을 못 주무실지라도, 끼니를 거르시더라도 틈틈이 기도하셨지요. 자신을 낮추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셨습니다. 구세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고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늘 구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든 영계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기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온전히 헤아리고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셨지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따르는 행함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뜻깊은 성탄을 맞아 이런 마음이 간절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에, 변화시켜 주심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 자녀로 나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마음이 간절하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나 사명 감당을 위해서나 반드시 늘 깨어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결단한 바를 이뤄가는 과정 중에 종종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해도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하고 낙심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지. 나는 더욱 기도해야지.’ 하고 먼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영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로 자신을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을 이겨 장차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칼럼

등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마음의 주파수

우리가 라디오의 특정 방송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알아서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잡음으로 인해

소리를 잘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방송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 있으면

오직 선과 진리의 생각만을 받아들이지만,

악한 쪽에 맞춰 있으면 비진리의 생각이 들어와

나쁜 행동을 낳게 됩니다.

때문에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 항상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라틴아메리카, 성결의 복음으로 온라인 선교 시대를 열다!



장정연 목사
(콜롬비아만민교회, 페루만민교회 담임)

2020년 10월 중순 라틴아메리카 대륙 내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천만 명을 넘었다. 국경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방문 선교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며 충만하게 선교 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콜롬비아만민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추수감사절 예배 시 본 교회와 마찬가지로 각 가정과 일부 지성전에서 정성껏 준비한 성찬식을 거행하며 한 해 동안 지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11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에는 온라인 손수건 집회가 생방송으로 개최되었는데 간질, 목 디스크, 좌골신경통, 심장병, 고지혈증, 전신통증 등을 치료받은 성도들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에는 21개의 지교회와 지성전이 콜롬비아만민교회와 함께 예배하며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다.

장정연 목사는 하루 빨리 국경이 열리고 현장 집회를 개최하여 각 지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뜨겁게 성결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빅토르 히메네스 목사는 엔라세(Enlace) 방송을 통하여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2012년 페루만민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예배와 목회자 세미나(강사 이수진 목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콜롬비아만민교회 장정연 목사와 꾸준한 교류를 해오다가 2018년 베네수엘라 시우다드 과자나에 지성전을 설립하여 베네수엘라 선교의 포문을 열었다.

그 후 2018년과 2019년 5차례 걸쳐 장정연 목사의 인도로 14회의 손수건 집회, 8회의 주의 종 세미나 그리고 3회의 만민 성결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어려운 경제 환경과 혼란스러운 정치 여건 속에서도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가 전파되었으며 베네수엘라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했다.

현재 시우다드 과자나, 발렌시아, 빠나메리카노, 자리따 구아, 푸르메로 등 5개의 지성전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으로 콜롬비아만민교회의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여 충만함을 얻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 또한 빠나메리카노 지성전은 성전을 건축 중에 있으며, 시우다드 과자나와 자리따 구아 지성전은 성전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앞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반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